

단감재배농가의 병해충 관리 실태와 경제성 제고에 관한 의식 조사

이동운, 박정규, 이규철, 이승욱, 추호렬

경상대학교 농생물학과

단감은 1999년 현재 23,907ha의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과수로서 생산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초과 생산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수출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동남아 일부국가에 만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측은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thiae*), 감나무주름응애(*Tenuipalpus zhizhilashiriliae*) 등의 부착 가능성을 들어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단감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단감원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밀한 방제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단감 경작자들의 병해충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의 노하우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국 검역 기준에 적합한 단감 생산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감 재배 농가의 병해충 관리 실태와 단감의 경제성 제고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의 120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단감 경작자들의 80%가 50대 이상으로 고령 농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단감 재배 경력도 10년 이상이 75% 이상을 차지하여 노령목들의 비중이 많았다. 단감 경작 시 수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병(40.7%)이라고 응답하였고, 문제되는 병·해충으로는 탄저병(64.6%)과 노린재(73.5%)를 가장 중요한 병·해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측의 검역 해충인 복숭아명나방을 문제 해충으로 응답한 경작자는 없었다. 병해충 관리에 관한 정보의 취득이나 방제 약제, 방제 시기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작자의 비율이 각각 43.4%, 34.5%,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생산된 단감의 균질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법의 제시가 요구되었다. 병해충 방제 작업 시에 응답자의 61%가 사용 기준을 이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연 평균 방제 횟수는 8~9회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80% 이상이 방제력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감 경작자의 35.4%가 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비의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단감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출증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4.5%로 가장 많았고, 수출이 확대되면 이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자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